

기 념 사

한국불교는 17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년전 공권력에 의해 불법이 매도당하고 수행자의 자존과 위의를 짓밟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마저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0·27법난이란 1980년 당시 사회
정화계획을 빌미로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충격을 안긴 날입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자유보장과 차별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체제를 파괴한 날입니다.
10·27법난은 명백히 불교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폭력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추된 헌법의 위상도 본래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불 · 법 · 승 삼보는 불교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과 세계인류의
보배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의를 품고
자행한 승보에 대한 만행과 그 수사
결과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스님들과 신도들의
아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문으로**

인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감추고 정신적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어른 스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억울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열반에 드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자리한 몇 몇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오히려 국민을
해하고 국민의 뜻을 호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10·27법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화합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견고히 확립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이 나라
에서 존립하는데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10·27법난이라는 과거사의 비극을 교훈삼아 미래를 창조하는데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찰로부터 얻어진 교훈은 불교발전은 물론 국가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명쾌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법회에 참석해주신 법난 피해관련자스님들과 재가자 여러분 그리고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공로자 여러분,

**불철주야 피해보상방안과 명예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기2554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